

第269号 1971年 12月15日
 (毎月1回15日発行)
 発行所 在日大韓基督教教会總會文書委員會
 大阪市西成区梅通5-2(〒557)
 電話 大阪 (06)651-5196
 發行人 丁 仁 寿
 1963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一部20円
 印刷所 僑 文 社 電話716-5046

福音新聞

宣教60~70周年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1、教会에 革新을
 2、社会에 變革을
 3、世界에 所望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 누가복음 2 장14절 >

祝聖誕

在日大韓基督教教会總會

祝聖誕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總會 會長 牧師 金得三																																			
副會長 牧師 尹宗銀																																			
書記 牧師 李昌雨																																			
傳道局長 牧師 金德成																																			
教育局長 牧師 洪東根																																			
社會局長 長老 金在述																																			
財政局長 長老 金漢弼																																			
總務 牧師 李仁夏																																			
宣教十周年計畫委員會總幹事 牧師 田永福																																			
試取委員長 牧師 吳允台																																			
治理委員長 牧師 丁仁寿																																			
KCC理事長 牧師 金德成																																			
家庭文書宣教会 牧師 崔忠植																																			
關西地方會長 牧師 金元治																																			
中部地方會長 牧師 金承俊																																			
西南地方會長 牧師 崔昌華																																			
船橋教会 牧師 孟哲輝																																			
西新井教会 牧師 崔京植																																			
品川教会 牧師 金桂昊																																			
橫濱教会 牧師 金君植																																			
調布教会 傳道師 姜榮一																																			
浜松伝道所 長老 李禎烈																																			
豊橋教会 牧師 金安弘																																			
岡崎教会 傳道師 李海春																																			
桑名教会 牧師 朴命俊																																			
名古屋教会 牧師 黃義生																																			
春日教会 牧師 安榮俊																																			
川西教会 牧師 李宗憲																																			
神戶教会 牧師 金瓊燦																																			
広島教会 牧師 金信煥																																			
宇部教会 牧師 韓在秀																																			
下関教会 牧師 洪永其																																			
折尾教会 牧師 金榮植																																			
福岡教会 牧師 太比秀																																			
佐世保伝道所 傳道師 朴昌煥																																			

1971년 성탄절

축하와기도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행사다. 우리의 신앙은 실재에 대한 의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재를 보여 주시고, 그의의를 제시하신다. 실재가 없으면 의의도 없다. 실재가 없이 어떠한 의의를 논리화한다는 것은 개념에 지나지 못한다. 예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요, 나사렛에 사는 역사적 실체가 탄생한 탄생을 크리스마스라 할 때 비로소 그의의를 믿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의 주인공이나 가공인들의 정상이라 할 때 크리스마스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나사렛에 사는 역사적 인물인 예수, 탄생한 역사적 사실을 성탄절로 기념한다고 할 때 예수가 누구며 탄생하신 의의가 무엇이라는 계를 기다리게 된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면 이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제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친히 보고 증거한 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가 실인물로 세상에 나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성탄절이다. 예수가 세상에 나신 의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요한이 친히 듣고 보고 만진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요, 처음부터 있었던 영원한 말씀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되시어 이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을 뜻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며 인간 역사를 새창조하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계시는 일이다. 그리스도만이 구주로 이세상에 나려오신 분이다. 예수가 다른 후성에 오시지 않고 지구에 오셨다는 것은, 지구만이 인간이 생

존한다는 것이며 그 인간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조물주의 뜻을 명시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탄생하신 것은 지구 전체, 세계 전체의 구원을 목적으로하신 것이니, 자유 국가권과 공산 국가권의 이 대조류로서 혼돈의 제국을 만들어 있는 인류제국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는 것을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190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다. 구원의 최후완성인 종말적 궁극을 향하여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무시간적 구원의 역사도 계속되어 있는 것을 믿는

다. 1971년의 현실 속에 크리스마스의 의의와 역사가 세계의 구원을 지향하면서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믿어진다. 중공을 국련에서 승인하고, 1971년의 해를 보내려하는 세계는 1972년에 어떠한 역사를 꾸며내려하는지는 모르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 있고 일해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의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축하한다. 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한다. 이세대에 구원의 역사를 교회와 함께 실현하여 주소서. 한국의 국가통일의 서망을 보여 주소서. 아 멘

여전도회 72년 12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히브리 11:13

소망의 생애

또다시 해가 바뀌어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며 새 소망을 부르짖으며, 저마다 새로운 계획에 분주합니다. 허나, 그 모든, 행사가 참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무한한 기쁨을 가져오리라는 확답을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새로움, 진정한 소망의 생애가 있으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안락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짐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고난저편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옛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고향없는 삶이였습니다. 옛적에 외국인이란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본토인의 의심, 미움, 무시를 받았읍니다. 스펀타에서는 "외국인"과 "야만인"을 같은 뜻으로 썼읍니다. "다른나라에서 사는 외국인"은 본국에서 추방된 죄인들인양, 가난한 자는 본토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부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고 당시에 일러왔읍니다. 크리스찬의 생은 나그네, 외국인, 순례자의 그림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가 땅에서는 비록 순례의 길을 걸으나 그의 안식처는 하늘에 있다"고 터틀리안은 말했읍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미련한 만세장사들이거나, 현실생활과, 사업을 무시, 혹은 가법적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설에 예수께서 "세상은 다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 다리를 건너가고, 고 위에 짐을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크리스찬은 영원을 향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상과 희망을 잃지 않았읍니다. 그 희망의 실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빛은 벌써 그들의 눈에 비취어 있었읍니다. 그들은, 어떠한 난관에서도 돌아서려 하지 않았읍니다.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주 애굽을 동경하여 그리로 돌아가려

했읍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그렇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떠난 길을 후회하려 하지 않았읍니다. 인생의 비극의 하나는 사람들이 좀더 참지 못하고, 조금씩 돌아서는 것입니다. 좀더 노력하고, 좀더 참고, 좀더 바라면 그 꿈이 실현될 것을 성공 일보전에 그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신앙의 길에 들어 설 때는 이미 중지나, 후회점을 넘어 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그 성실하심이 영원불변하심에 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너무도, 불완전합니다. 온갖 보람된 일들을 위해 수고한다 하여도,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쳤어도, 일은 겨우 시작입니다. 우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도, 끝이 없읍니다. 유고는 70세 때 말하기를 "나를 약 반세 기동안, 산문, 시, 역사, 철학, 극, 소설, 기타로써 나의 생각을 표시했으나, 내 속에 있는 1000분의 1도 발표할 것 같지 않다. 내 몸이 무덤에 들어갈 때 그것으로 내 생의 끝이라 생각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동감입니다. 오직 영원을 약속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의 그늘안에서 멀리 바라보며 믿음을 품고, 소망의 생애를 쉬임없이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하는 두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여러가지 번거로운 문제들은 다 우리 영혼의 순례로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동리요 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피곤케 하고, 낙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최후의 영광스러운 큰 도성에 도착하기까지는 우리들의 여정(旅程)은 머무를 수가 없읍니다.

저마다, 새로움을 노래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먼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읍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20)」 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다시 자문해 봅시다. 우리들의 복잡한 가정생활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피곤해 지쳐 너머지며 되돌아서려던 신앙의 발거름이 아니었는지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시 힘을 얻어, 용감한 전진으로, 하늘의 순례길을 증거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 ×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행로를 지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 합니다. 그 크신 사랑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영원한 소망의 생애를 쉬임없이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맞나는 일들에서 저희의 심신을 쇠하게 함보다,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의 비밀을 배워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신비를 믿고,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를 행진곡삼아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의 지점까지 영광스러운 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알림

1. 요청서 제출·수리
우리대회에서 결의한대로 교회 청소년소녀들의 신앙생활지도를 위한 요청서를 지난번 재일대전기독교회 제27회 정기총회시에 제출하여 수리되었습니다.
2. 교회의 청소년 소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지난번 대회에서 결정한대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청소년 소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각지회마다, 여전도회 월례회시에 기도드립니다.
3. 연수회는 지방회 별로...
제23회 정기대회에서 개정된 표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행1:8)"를 주제로 금년 연수회는 지방회별로 하도록 임원회에서 결의 되었습니다. 각 지방회에서는 적당한시기와 계획을 전구연합회 사무실 주소로 교육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 이영숙

(3면부터)

젊은 세대의 교회참여문제와 아울러 심각한 문제다. 교회는 민족을 초월하면서 민족을 섬긴다. 우리총회의 모든 움직임이 진정으로 재일동포의 민족주체성을 확립시키는데 이바지해 왔을까? 오늘날까지 재일 한국인을 섬기고 온총회의 선교 교육리념이 재검토되어야 하겠다.

クリスマスの祈り

— 歴史のまん中に立って —

神学が志向する究極は、イエスとキリストである。実在と意義である。歴史学としての神学と、教義学としての神学である。時間と無時間である。事件と目的である、イエスについての神学的課題は、イエスの歴史性である、キリストについての課題はイエスの歴史性のもつ意義である。

ナザレのイエスが歴史的事実であったか、イエスの誕生が歴史的事件であったか、そうではなくて、一つの神話であり、仮空の人物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神学的課題の焦点がクリスマスにある。神は実在を示して、その意義を啓示し給う。実在が無ければ意義もあり得ない、聖書が神の言であるということは、ナザレのイエスなる人物を親しく目で見、耳でその声を聞き、よく見て手でさわった弟子達が、その歴史的事実を証言した言葉であるからである。

イエスの歴史性という神学的課題を最も直接的に弁証し実証しているのがクリスマスである。神話には歴史がなく、誕生という事件はない。

神はイエスの誕生によって一つの事件を起し、イエスの実在を示して、その意義を啓示し給うた。

ナザレのイエスの意義は、キリストである。

キリストの意味は、インマヌエルである。神が人間と共に居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ある。イエスは、神が御心

の目的はキリストである。人間の救いが目的である。一言に言って、クリスマスは人間を救うため、神が人間の世界に受肉された事件である。

人間とは世界である。地球上に居る人類である。

神が他の惑星に來られず地球上に來られたのは、地球にのみ人類が生息しているからであって、それだけ人間を神は、全宇宙よりも貴く見て居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

地球上は今、神を迎える何ももない状態である。

国連も、神を迎えようとしていない。世界は完全にとまっていいほど、神のない世界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無限に混沌として、底知れぬほどの人間悪と、行きつきるところのない闘争と、飽くことを知らない享楽と、極みない理性の追求と智識の欲求に、はてしない歴史を綴っている。人間一人一人は、ほとんど自己を失い、力にふり廻されつつ、論理の転回に頭脳の細胞を消耗し続けている。

救われようともせず、このままの生が満ち足れたものとしている。満ち足りないものによって、満たそうとしている。何とかして救われないようにと生を方向づけ、生のすべてを燃焼し続けている。こうした地球の現実の中に、イエスが誕生され、今年も、その誕生を教会が迎え、記念しているのである。何を祈るべきかわからないほどに、神の

る。

只一つ、人間は救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今の世界の現状こそ、完全に人間の滅亡の姿である、高度の文化を身にまといつつ人間を失った骸骨が、宇宙開発への夢を追いかけているのである。

只一つ、人間は完全に人間を救い得ないことを実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昔は、人間の宗教が、芸術が、倫理が、人間を救い得るように錯覚されるほど世界はよか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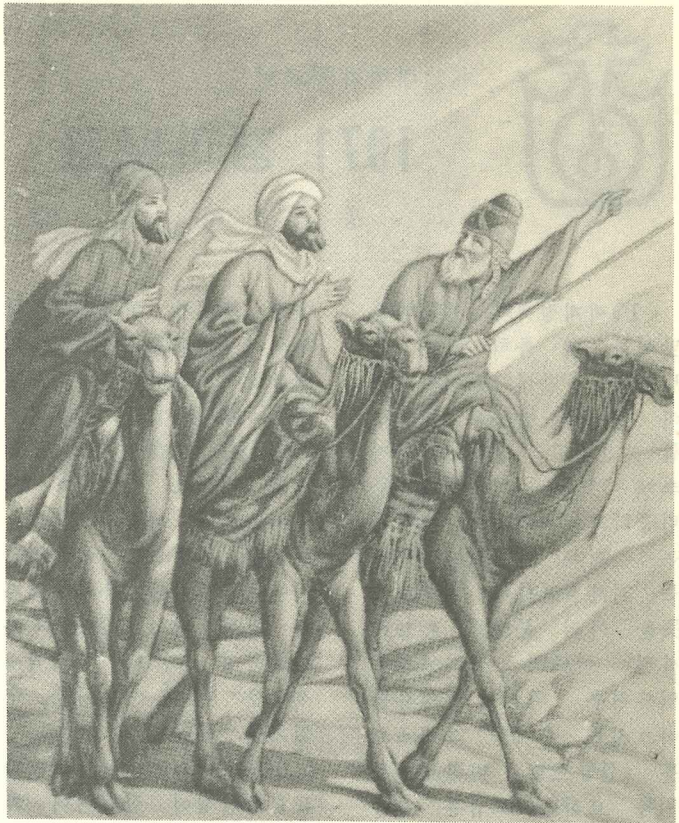
百年前の教会は、今日ほどに絶望していなかった、今日より、その当時の人間は、人間らしかった。今日は完全に人間の限界が果てしない弱さであることを証している。

1971年のクリスマスにこそ、神の救いのみが人類に可能であること、キリストこそ今日の唯一の救いであり、希望であり、光であり、生命であることを知らされるのである。

教会は、1971年のクリスマスに初めてとっていい程の確信と希望をキリストにおいて、祈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驚愕の思いで考えさせられた。

在日大韓基督教会が、真実に歴史の中に立って居られるキリストを見上げ、目を転じて世界を見渡し、謹んで神の聖前に世界の救いを祈り、在日61万同胞の救いを祈り、5千万同胞と祖国の救いを祈り、

いのちの救いを捧



単数と複数

— 私のクリスマス —

すべての道はローマに通するというが、それと逆に、キリスト教のすべての道は、クリスマスから発する。神と人間の接点から初まる。神と私の接点から初まる。単数でなく複数から初まる。我と汝から初まる。神と私の出会いから初まるのが信仰である。

クリスマスは、神と人間の出会いであって、神と私の出会いである。キリスト教は私一人の出発から初まるのではない。独語から、自問自答から、発心から、探求心から、内面的な宗教心の発想とか、宗教的な衝動とかから初まるのではない。思いがけない神との出会いから初まるのである。思いがけない機縁から、教会の門をたたくとかいうこともあろうが、そこでキリストとの出会いが信仰の初まりとなる。出会いの初まりは、クリスマスからである、イエスの降誕が、神の降誕であって、この世に來られたこと、これが真実である。インマヌエルである。

我と汝であって、彼はなく、論理はない。

それは、神が私にある。そして私に出会う。

4会いは、終って、私の末として暴露するのである。そこに救いがもたらさる。

ザアカイが、思いがけないキリストとの出会いを経験した(ルカ 19:1~10) その時「今日救いがお前の家にもたらされた」と言われた。そこで起った事件は、ザアカイの大きな転回であった。ザアカイの中に最初に起ったことは、責任意識であった。責任意識は罪意識に先行する。責任意識からの罪意識でないものは本当の罪意識と言えない。人間は単数の個々が、複数として存在しているのである。単数の人間が、複数の人間存在意識にめざめた時、責任意識がめざめて来るのである。単数の人間が、キリストの出会いによって複数の人間としてめざめさせられるのである。人間は生れ落ちた瞬間、親子関係の複数から初まる、韓国人という複数から初まる。そうした人間が、単数としての自意識のみで生きているところに、責任意識を喪失し、あらゆる罪の積み重ねを続けて行くのでない。単数の罪はあり得ない。罪は複数の中に生じ、複数の中で犯されて行くのである。キリストと私が、単数だけの関係である間、人間は真のキリストの出会いを経験していないのである。

1971年のクリスマスが本当のクリスマスであることは私のクリスマスであり、私が神と出会うことである。そこから初まる私の信仰の出発である。又新しい信仰の基点でもある。